경상남도 GYEONGNAM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보 도 자 료

2019년 8월 1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공보관	담당자	최현철 주무관 윤태경 주무관	연락처	055-211-2314 055-211-2077

김경수 지사 “일본 수출규제, 경남 제조업 체질 개선 기회로”

- 단기적 긴급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 지속가능성 강화
- 대응 TF 구성 및 대외경제 민관 협력회의 구축
- 상황·단계별 대응 마련 및 기업애로 안내 창구 개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경남 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1일(목)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 회의>에서 “내일(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경남에도 꽤 여러 기업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 가지 관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정부당국이나 경제계가 냉철하게, 실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응하자”고 전했다.

이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꼭 갖춰야 될 체계”라며 “일본 등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는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통해서 향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긴급 대응이 가능한, 체질이 강한 경남의 제조업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단기적 대응에 있어서는 냉정함을 견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일본의 조치를 경남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체질 개선 기회로 삼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평소에도 특정산업 편중과 의존에 대해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산업별 균형발전 등 산업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 문승욱 경제부지사, 허진 국제관계대사, 강성원 경제정책자문관, 이우석 금융정책자문관과 함께 박석모 경남무역 대표이사,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 구철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안완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진근 경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등이 함께 했다.

김 지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와 정부 대응방향, 경남경제 여건과 수출규제 영향, 경남도 차원의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순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경남도는 경남테크노파크,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무역협회,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도내 기업들이 정보부족으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통관절차의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도를 중심으로 한 TF를 구성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외경제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수출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에 자금을 사용한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만기와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일본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하여 피해기업 신고접수를 받고 자금과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부품소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자세로 도내 소재부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지역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이 될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기술력을 높이고,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산학관연 협업체계 통해 도내 소재부품기업과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대기업-중소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등 시장 다양화를 추진한다.

농수산식품 수출 분야는 파프리카, 토마토, 굴 등 일본의 주요수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제재조치가 없지만 수출규제 장기화에 따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나선다.

오는 6일(화) 오후 3시에는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 주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최현철 주무관(055-211-2314)이나 공보관 윤태경 주무관(055-211-20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